임채빈 32연승? 정하늘·황인혁 반격?

임채빈 연대세력 없이 무패행진
한 수 위 자력승부로 우승 충분
도전자 슈퍼특선 정하늘·황인혁
연대세력 가세할땐 뒤집기 가능

2019년 열린 대상경륜 결승에 출전한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대상경륜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31연승의 임채빈이 무패행진을 계속할지, 21기 동기인 정하늘 황인혁 등이 슈퍼특선반의 자존심을 회복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시즌의 첫 대상경륜인 '스포츠서울배 대상경륜'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광명스피돔에서 열린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대상경륜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대상경륜은 25일 예선과 26일 준결승을 거쳐 27일 시즌 첫 우승자를 가린다.

지난해 생애 첫 그랑프리 출전에서 우승까지 한 임채빈(수성 25기)이 올해 첫 대상경주부터 우승하며 최강자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든 팬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예상은 임채빈의 아성에 21기 쌍두마차 정하늘(동서울)과 황인혁(세종)이 슈퍼특선반의 자존심을 앞세워 도전하는 양상이다. 슈퍼특선반은 아니지만 최근 상승세 흐름이 뚜렷한 정해민(동서울 22기), 공태민(김포 24기)을 비롯해 신은섭(동서울 18기), 정정교(김포 21기) 등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우선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 임채빈은 현재 31연승을 기록하며 정종진의 50연승이란 대기록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거의 매 경주 연대세력 없이 홀로 싸워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이번 대상경륜에서도 아군이 없다시피 한 경주가 예상된다. 그래도 이제껏 보여준 임채빈의 한 수 위 자력승부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채빈의 대항마로는 같은 슈퍼특선반인 정하늘, 황인혁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정하늘, 황인혁이 임채빈을 만났을 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대상경륜에선 올해 기선제압이라는 의미도 있어 각자의 연대세력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 충분히 반기를 들 수 있겠다. 만약 두 선수에게 연대세력이 조금만 가세해준다면 이들 중에서 충분히 우승자가 나올 수 있다.

그 외 선수들 중에서는 힘으로 승부하는 정해민, 다양한 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공태민이 슈퍼특선반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정해민이 결승에 올라온다면 정하늘과 힘을 합쳐 임채빈에게 거센 도전장을 내밀 수 있어 팬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향후 슈퍼특선반을 노리는 두 선수에게는 우승이 아니더라도 준우승이나 3착을 기록해도 만족할만한 성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상경륜의 입상권을 예측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복병으로 평가되고 있다.

명품경륜 승부사 김순규 수석기자는 "올 시즌 첫 대상경륜에 특선급을 대표하는 별들이 총 출동해 명승부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결승선 앞까지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경주가 펼쳐질 전망이다"며 "여러 정황상 최강자 임채빈이 타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우승이 유력시 되나 만에 하나 경쟁상대들이 연대세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함께 승부에 나서면 홀로 싸우다시피 하는 임채빈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임채빈이 연승기록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번 대상경륜 우승을 거머쥐는 두 마리 토끼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우승후보 입상 축 부진 이변땐 전형적인 고배당

7회차 7경주 축 박석문 전복사고
쌍승식 31.5배·삼쌍승식 182.1배

경정은 스타트부터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만큼 정교한 추리가 필요하다.

고배당의 다양한 유형 중 첫 번째는 우승후보로 지목됐던 입상 축의 부진이다. 통상 팬들은 편성에서 안정적으로 순위권 안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를 축으로 잡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축이 선두권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7회차의 첫날 7경주는 박석문이 축으로 주목받았다. 1턴 휘감기로 승부수를 던졌으나 백스트래치에서 상대들을 확실하게 압박하지 못했다. 1주 2턴에서 실속한 전두식과 후속하던 이미나와 추돌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을 피한 강영길과 최재원 그리고 전두식이 동반입상하면서 쌍승식 31.5배와 삼쌍승식 182.1배가 형성됐다. 축이 무너져 이변이 발생한 전형적인 고배당이다.

우승 후보와 도전 선수의 순위가 뒤집혀 고배당이 나오기도 한다. 7회차 목요 6경주에는 심상철이 축으로 관심을 모았다. 박종덕은 유력한 경쟁상대로 평가됐다. 심상철이 0.14초의 빠른 스타트로 휘감기를 시도했으나 안쪽 코스의 견제로 인해 선회각이 커지고 말았다. 그 사이 빈틈을 정확하게 휘감아찌른 박종덕이 단숨에 선두로 오르면서 쌍승식 5.0배로 끝날 경기가 19.1배로 마감됐다.

축이 제 몫을 해도 후착권 후보들이 부진해 높은 배당이 터지기도 한다. 7회차 수요일 6경주가 좋은 예다. 최상의 조건을 갖춘 김종민이 1코스를 배정받아 우승후보로 평가됐고 바로 옆인 2번 손제민과 3번 권명호가 도전 세력으로 꼽혔다.

김종민은 선두 장악에 성공했으나 손제민은 스타트가 늦었고 권명호는 1턴 경쟁에서 승부 타이밍을 놓쳤다. 그 사이 인기순위 5위였던 4코스의 김대선이 공간을 파고들어 초반 2착으로 올라섰다. 이것도 이변이었으나 추격의 끈을 놓지 않던 인기순위 꼴찌 6번 박준현이 마지막 2주 2턴 마크에서 역전하며 쌍승식 31.0배와 삼쌍승식 371.5배가 나왔다.

마지막은 입상 후보의 윤곽이 드러난 편성에서 흐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7회차 수요일 12경주는 적극적인 지정훈련 내용과 좋은 모터를 잡은 이재학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6코스 김현철과의 동반 입상이 점쳐졌다. 여기에 1코스 이점을 안고 있는 고정환과 5번 이승일의 도전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재학을 비롯해 바깥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지 못했다. 인빠지기에 나선 고정환을 상대로 인기순위 5위였던 이경섭이 날카로운 휘감기로 반격해 쌍승식 30.3배가 나왔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전문가는 "매번 이변이 나오는 것은 아닌 만큼 무리하게 이변 전략만 고집하기보다 꼼꼼한 편성 분석과 축을 비롯한 입상후보들의 경기력 체크, 날씨와 수면 상태 등을 판단한 후에 소액으로 분산해 공략하는 것이 정석이고 효율적인 전략이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SPOEX' 참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에 참여했다. 홍보부스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인 스피드온과 인도어 사이클을 체험할 수 있게 꾸몄다. 경륜경정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과몰입을 예방하는 건전화 콘텐츠도 함께 마련했다. 사이클 체험의 경우 스마트 고정롤러를 이용해 실제 야외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가상으로 라이딩을 즐기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운영했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인 스피드온을 현장에서 가입하고 실시간으로 열리는 경주(목요일 경정, 금·토·일요일 경륜)에 참여해 보는 체험도 실시했다. SPOEX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 행사로 179개 사가 참여해 1087개 부스에서 헬스와 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아웃도어와 캠핑, 자전거와 익스트림, 수중 및 수상, 캠핑카 등 분야별 스포츠레저 용품을 소개했다.

2021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성과보고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021년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성과보고회를 18일 광명스피돔에서 개최했다.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은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에 과몰입된 아동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자전거 교육, 라이딩)을 접목시켜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시작해 경주사업총괄본부와 광명YMCA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6600만 원. 5년간 누적 4억22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9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85명을 대상으로 7회 교육을 실시했다. 개인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 치료방식을 결정하는 맞춤형 심리치료, 자전거 조립부터 구조와 원리 알기, 올바른 주행자세, 동네 한 바퀴 자전거 라이딩 등의 자전거 활동치료를 병행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성과보고회를 통해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우와~ 센추리냉난방기 사셨네요. 요즘 인기라는데 정말 좋아요?
당연하지! 센추리 냉난방기는 45년동안 한우물만 판 냉동공조기회사로 사무·업소용 냉난방기 전문회사라고~ 유지비 절감에 냉방·난방 잘되고 구매조건도 너무 좋아. 난 할부로 구매했지
사장님이 구매하신 장기 36개월 할부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무보증 무담보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와~
특히 업소용은 유지비와 냉방.난방능력과 구입조건이 포인트입니다. 센추리는 이 4가지와 체계적인 A/S시스템과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저희 에너지 설계 전문가들이 무료로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정평설계, 가장 유리한 구입조건, 설치조건, 중고제품 보상까지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중고제품 보상처리
역시~ 센추리 냉난방기가 최고구나~
좋은 조건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시고 확실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당장 설치해야지 ^^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